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8.00원 상승한 1,178.10원에 마감

21일 환율은 전일대비 8.00원 상승한 1,178.1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40원 상승한 1,172.50원에 개장했다.

미중 무역협상 연기 전망, 홍콩 인권법안 통과 등 관련된 불확실성을 반영해 환율은 갭업 출발했다. 오전 11시반경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중 협상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달러-원 환율은 위안화에 연동해 일시적으로 상승폭을 줄였다. 류허 부총리의 협상 낙관발언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 달러-원 환율은 재차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피 등 국내 증시 하락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이어졌고, 외국인 달러 매수에 따라 고점을 1,179.00원까지 높인 후 전일대비 8.00원 상승한 1,178.10원에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 환율은 1,176.5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원-엔 재정환율은 1,085.13원이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72.50	1179.00	1172.50	1178.10	1176.5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76.97	1086.50	1076.97	1084.59

금일 전망

글로벌 위험선호심리 둔화에 1,170원대 중후반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70원대 중후반 등락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6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78.10원) 대비 1.35원 오른 1,176.15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우려, 미-중 무역합의 불확실성 확대에 위험선호심리 위축되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합의 연내 합의 타결에 대한 기대가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에 대해 또 다른 무역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또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환전 수요도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일 급등에 대한 조정 및 고점인식에 따른 수출업체 네고물량 등 달러 매도세는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73.67 ~ 1179.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706.36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35원 ↓
	■ 美 다우지수 : 27766.29, -54.8p(-0.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2.56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20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